

■ 차베스의 개헌안, 혹독한 패배를 당하다

후안 루이스 에르난데스

차베스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대도시의 ‘반대’는 확연하다. 58% 가량의 투표자가 ‘반대’에 표를 던져서 58만 표 이상의 차이가 난다. 중도시에서는 사실상 비긴 반면, 소도시에서는 ‘찬성’이 근소하게 앞섰다. 전반적으로 도시에서는 ‘반대’가 53.5퍼센트로 우위를 점했고, 득표수로는 50만 표 가량 앞섰다.

〈표: 거주 지역에 따른 국민투표 현황〉

거주 지역	찬성 득표 수	반대 득표 수	찬성 비율	반대 비율	득표수 차이
대도시	1,572,531	2,155,404	42.2%	57.8%	-582,873
중도시	482,436	475,147	50.4%	49.6%	7,289
소도시	1,255,249	1,174,919	51.7%	48.3%	80,330
도시 합계	3,310,216	3,805,470	46.5%	53.5%	-495,254
대촌락	453,177	329,294	57.9%	42.1%	123,883
소촌락	615,999	369,590	62.5%	37.5%	246,409
농촌 합계	1,069,176	698,884	60.5%	39.5%	370,292
총계	4,379,392	4,504,354	49.3%	50.7%	-124,962

중도시(ciudad intermedia): 대도시와 소도시 사이의 중간 규모 도시
 소도시(capitales Municipio): 베네수엘라의 335개 자치 단위의 중심 도시
 대촌락(pequeños poblados): 유권자 1,500명 이상 규모의 마을
 소촌락(rural pequeña o área rural): 작은 규모의 농촌 지역



12월 2일 반차베스 군중들이 개헌안 부결 소식에 환호하고 있다(카라카스).

농촌에서는 ‘찬성’이 우세했다. 특히 소촌락에서 ‘찬성’은 62.5퍼센트의 득표율로 가장 큰 우위를 점하면서 찬성표가 24만 6천표 가량 앞섰다. 농촌에서 ‘찬성’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반대’는 단지 약 12만 5천표의 우위만 점하게 되었다.

가장 교육수준이 낮고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지역, 그래서 과거 헌법과 현재 헌법의 차이를 상대적으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농촌 지역에서 차베스의 개헌안이 가장 의미 있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커다란 역설이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언급할 것이다.

정부의 장악력이 대단히 크고 개헌 반대자들이 아주 소수인 대촌락과 소촌락 지역에서 ‘찬성’이 가장 큰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표소에서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투표소에서 표심의 중요한 왜곡 요소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첫 번째 징후는 농촌 지역의 득표수 차이에서 명백하게 감지된다. 또한 ‘반대’가 아주 낮은데도 기권은 많았던 결과에 대해서 검토해보면, 투표소에서의 유권자들의 표심 왜곡 가능성을 입증해 주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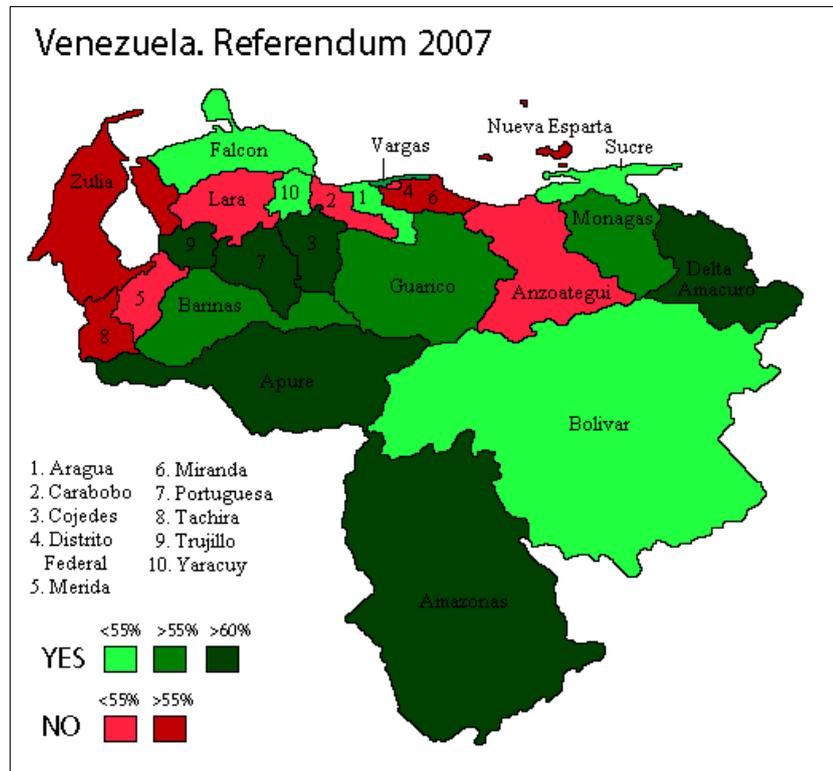
극단적인 사례는 델타아마쿠로 주의 어느 투표소에서 벌어졌다. 유권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투표를 했고, 모두가 ‘찬성’에 표를 던졌다. 델타아마쿠로 주에서 기권은 38퍼센트이고, 이 주의 몇몇 소도시에서는 55퍼센트에 이른다. 비슷한 상황이 에도아푸레 주의 외진 투표소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이곳에서도 기권은 없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290명의 유권자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반대’에 표를 던졌다는 사실이다.

말할 나위 없이 기권은 개헌안의 패배에서 결정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기권이, 비록 차베스의 개헌 제안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개혁의 지도자를 배신하는 것은 원치 않았던 충성스러운 지지자들 때문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 우리가 보기에 기권 현상은 훨씬 더 복잡한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잠재적인 ‘반대’ 유권자들이 기권하였다. 이는 야권이 지배하는 주 및 소도시에서 반대표가 줄고 기권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물론, 여전히 여권에 충실하지만 개헌은 거부하는 기권자들도 있다. 이런 경향의 사람들은 대도시에서는 분명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나라 전체를 통틀어볼 때 기권자의 다수를 점하지는 않는다. 또한 여권 지지자들 중에서 정치적 활동을 중단하거나 정치적 환멸을 느낀 사람들의 기권도 존재한다. 이런 종류의 기권은 농촌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찬성표도 개헌을 지지한다는 의미만 지니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찬성’을 택한 상당수 사람들, 특히 농촌 지역 유권자들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 또 최근 몇 년 동안의 성취에 대한 지지를 반영할 뿐이다.



개헌안 국민투표의 지방별 찬반 결과

반대표 역시 개헌에 대한 거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내에서 지배적인 정치 행태와 정치적 메시지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대도시에서부터 농촌 지역에 이르기까지 일어난, 여권 표의 ‘반대’로의 이동은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부의 전방위 압력과 권력남용에도 불구하고 충성도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정치적 선택을 바꾸는 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정말로 손쉬운 일이 될 전망이다.

개헌안이 ‘반대’에 표를 던진 유권자들과 일부 여권 기권자 및 반대자들의 기권에 의해 거부된 데다가 농촌 지역의 찬성표에서도 분명한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통계치가 가리키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패배한 것이다.

퍼센트로 따지자면 총 유권자 중 64%가 개헌을 지지하지 않는다. 또 이 수치는 대도시에서는 68%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 반대로 총 유권자 중 36%만이 개헌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데, 실제로는 20% 가량의 유권자들만이 확고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개헌에 대한 취약한 지지는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첫째, 앞서 지적한 것과 연관이 있다. 개헌을 확고하게 또 의식을 지니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유권자들 중 적은 비중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둘째, 가장 중요한 승리는 농촌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두드러진다. 교육 수준이 낮고 정치적 정보가 결핍되어 차베스의 제안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이다. 이런 사람들은 취약한 지지기반을 이룰 뿐이다. 정치적·사회적으로 가장 소극적이고 비역동적이어서 마치 제일 큰 환멸과 정치적 무관심이 발생한 지역처럼 보일 정도이니 말이다. 게다가 이들 중에서 ‘찬성’에 표를 던진 사람들 중 일부는 투표소에서 조종을 받은 것일 수도 있어서 결코 진정한 표심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상황 때문에 2008년은 여권에게 정말로 쉽지 않은 해가 될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들과 맞서야 하는데다가 이번 패배에 따른 불가피한 후유증 때문에 중대한 통치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번역: 서라연]

후안 루이스 에르난데스(Juan Luis Hernández) - 1946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출생했다. 농업개혁 전문가, 센트랄대학 교수, 주프랑스 베네수엘라 대사관 농업담당관을 거쳐 2004년부터 현재까지는 일간지 《엘 나시오날》, 《엘 디아리오 데 카라카스》 기고가로 일하고 있다.
